

지역 소식통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 제4차 전체회의 개최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문, 이하'추진위')는 지난 14일 부안을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차 추진위원회에서 선임된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 총감독(이영민) 위촉으로 시작됐으며 이영민 총감독이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민 감독은 노을과 어울리는 와인과 재즈를 배경으로 하는 기존과는 다른 세련된 콘셉트의 프로그램 및 작년 노을축제 당시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셉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관내 와인업체 및 지역특산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내장저수지 인근 낙석구간 응급복구 완료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사면이 붕괴돼 차량통행이 제한됐던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가 40여일만에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정읍시는 지난 7월 6일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발생한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사면 붕괴 현장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을 지난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그간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었던 도로시도 35호선가 임시 개통돼 차량 통행과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임시 통행 조치 후 안파쇄방호시설 설치 등 추가 낙석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도로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음에도 이해해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물빛축제 성황리 종료

정읍천변 일원서 개최... 5만명 이상 방문 가족단위 관광객들에 큰 호응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정읍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2023 정읍 물빛축제에 5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 처음 개최된 2023 정읍 물빛축제는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간식과 체험 등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으며, 수제 맥주존에는 갈증을 해소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워터풀에는 무더운 여름철 한줄기 빗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버블쇼와 물총 싸움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기가 있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읍시 공식 SNS와 연계한 물빛네트는 2023 정읍 물빛축제에서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로 줄을 지었다.

패들보트 레이스·징검다리 건너기 등 레크리에이션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겼다.

흥겨운 EDM 파티와 블루스 공연에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정읍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2023 정읍 물빛축제에 5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서는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축제장에 있는 모두가 함께 어울렸고, 정읍 예술인들의 예술 공연과 시립국악단·농악단의 공연은 정읍 문화예술의 힘을 보여줬다.

또한 불라리아·포르투갈 등 짬버리 대원들이 축제장을 방문해 함께 공연을 즐겼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처음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득한 정읍만의 특색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 일제히 폐장... 3만여명 방문

고창군, 폐장 후 안전관리요원 20일까지 연장 근무

고창군의 해수욕장 2곳(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이 지난 15일부터 일제히 폐장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월7일 개장후 40일간 총 3만여명의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 태

풍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도 인명사고로 단 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해수욕객의 안전에 군과 유관기관이 합심해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다.

군은 해수욕장 폐장 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정보를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폐장 후에도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20일까지 연장 근무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얻은 교훈과 문제점을 바로 진단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개·보수하여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에 위문품 전달

고창군이 8월5일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독립을 위한 희생과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귀촌해 공음면에 거주 중인 이은순 씨의 아버지인 이근석씨는 1919년 논산 지역 3·1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태극기 제작 및 주민 규합 등 시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채운화원, 신흥화원을 설립하는 등

주민들의 문맹퇴치와 청소년들의 독립정신 고취에 힘썼다.

대신면에 거주하는 정만영씨의 아버지인 정효규씨는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다. 1938년 정읍에서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비밀 결사 조직인 신인동맹을 조직하고 동지 규합과 허부 조직 결성 및 자금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한민국이 있

기까지 독립유공자의 희생은 가히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매년 광복절을 맞아 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위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기릴 것”

정읍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거행

정읍시는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연지아트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해 보훈가족과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시의회 의장, 제8088부대 장의규 여단장, 최금희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안광식 광복회 정읍지회장의 기념사, 이학수 시장 경축사, 광

복절 노래, 고경윤 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학수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훈정책과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GS리테일이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GS리테일과 자살예방 '맞손'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GS리테일이 자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성백준)와 GS리테일 정읍영업팀(팀장 허성준)은 최근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상승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GS25 편의점을 '생명사랑 실천가게-생명지킴이 편의점'으로 지정하고 경영주와 종사자는 양성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또는 생명라더로 자살 예방에 동참한다.

생명지킴이 편의점에는 우울 선별 검사지를 비치해 검진이 가능하게 하고, 검사지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편의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 유관기관에 연계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병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생명사랑 실천업체-생명지킴이 편의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GS편의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더 많은 편의점이 생명지킴이 편의점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경영주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생명라더, 생명지킴이가 돼 자살 예방과 생명 사랑에 힘을 보탬 수 있다"며 "자살 예방은 주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 권유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